

6

언어 영역

[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여승(女僧)은 합장(合掌)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
 쓸쓸한 낮이 넷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佛經)처럼 서러워졌다

평안도(平安道)의 어니 산(山) 깊은 ㉠ 금덤판
 나는 파리한 여인(女人)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女人)은 나 어린 딸아이를 따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
 었다

섭벌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십 년(十年)이 갔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산(山)뺨도 설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 산(山)절의 마당귀에 여인(女人)의 머리오리가 눈물
 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 백석, 「여승(女僧)」 -

(나) 저 지붕 아래 제비집 너무도 작아
 갓 태어난 새끼들만으로 가득 차고
 어미는 등지를 날개로 덮은 채 간신히 잠들었습니다
 바로 그 옆에 누가 박아 놓았을까요, 못 하나
 그 못이 아니었다면
 아버지는 어디서 밤을 지냈을까요
 못 위에 앉아 밤새 꾸벅거리는 제비를
 눈이 뜨겁도록 올려다봅니다

중앙동 ㉢ 버스 정류장, 흠바람은 불어오고
 한 사내가 아이 셋을 데리고 마중 나온 모습
 수많은 버스를 보내고 나서야
 피곤에 지친 한 여자가 내리고, 그 창백함 때문에
 반쪽 난 달빛은 또 얼마나 창백했던가요
 아이들은 달려가 엄마의 옷자락을 잡고
 제자리에 선 채 달빛을 좀 더 바라보던
 사내의, 그 마음을 오늘 밤은 알 것도 같습니다
 실업의 호주머니에서 만져지던
 때 묻은 호두알은 쉽게 깨어지지 않고
 그럴듯한 ㉣ 집 한 채 짓는 대신
 못 하나 위에서 견디는 것으로 살아온 아버,
 거리에선 아직도 흠바람이 몰려오나 봐요
 돌아오는 길 희미한 달빛은 그런대로
 식구들의 손잡은 그림자를 만들어 주기도 했지만
 그러기엔 ㉤ 골목이 너무 좁았고
 늘 한 걸음 늦게 따라오던 아버지의 그림자
 그 꾸벅거림을 기억나게 하는
 못 하나, 그 위의 잠

- 나희덕, 「못 위의 잠」 -

(다) 어머니,
 제 예닐곱 살 적 겨울은
 목조 적산 가옥 이층 다다미방의
 벌거숭이 유리창 깨질 듯 울어 대던 외풍 탓으로
 한없이 추웠지요, 밤마다 나는 벌벌 떨면서
 아버지 가랭이 사이로 시린 발을 밀어 넣고
 그 가슴팍에 벌레처럼 파고들어 얼굴을 묻은 채
 겨우 잠이 들곤 했었지요.

요즈음도 추운 밤이면
 곁에서 잠든 아이들 이불깃을 덮어 주며
 늘 그런 추억으로 마음이 아프고,
 나를 품어 주던 그 가슴이 이제는 한 줌 뺏가루로 삭아
 붉은 흙에 자취 없이 뒤섞여 있음을 생각하면
 옛날처럼 나는 다시 아버지 곁에 눕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오늘은 영하(零下)의 한강교를 지나면서 문득
 나를 품에 안고 추위를 막아 주던
 예닐곱 살 적 그 겨울밤의 아버지가
이승의 물로 화신(化身)해 있음을 보았습니다.
 품 안에 부드럽고 **여린 물살**은 무사히 흘러
 바다로 가라고,
 팡 팡 **얼어붙은 잔등**으로 흑한을 막으며
 하얗게 **얼음**으로 엮드려 있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 이수익, 「결빙(結氷)의 아버지」 -

20.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반어적 표현을 구사하여 주제를 부각시킨다.
 - ② 시간의 변화가 시상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③ 부정적 현실을 포용하려는 여유로운 정신이 엿보인다.
 - ④ 대화체를 사용하여 독자를 시 속으로 깊숙이 끌어들이는다.
 - ⑤ 화자와 대상의 거리를 좁혀 자연 친화적 태도를 드러낸다.
21. (가)와 (나)를 비교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사람이, (나)는 자연물이 시상을 유발한다.
 - ② (가)는 (나)에 비해 내면을 성찰하는 태도가 잘 드러난다.
 - ③ (나)는 (가)에 비해 간접적으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나)는 (가)에 비해 친근한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비유적으로 인물을 표현하고 있다.
2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여인'이 생계를 유지하는 공간
 - ② ㉡: '여인'이 비극적 상황에서 대안으로 선택한 공간
 - ③ ㉢: '사내'가 자신의 처지를 확인하는 공간
 - ④ ㉣: '사내'가 지향하는 삶을 상징하는 공간
 - ⑤ ㉤: '사내'가 정서적 유대감을 느끼게 되는 공간

23.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외풍’은 아버지의 사랑을 대비적으로 부각시키는 소재이다.
- ② ‘이승의 물로 화신’에는 삶에 대한 윤희론적 인식이 엿보인다.
- ③ ‘여린 물살’은 아버지의 보호를 받는 자식을 형상화한 것이다.
- ④ ‘얼어붙은 잔등’은 화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 사건을 추측하게 한다.
- ⑤ ‘얼음’은 일반적인 속성과는 달리 따뜻함이 투영된 이미지이다.

[24~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현대 산업 체계에서 도량형의 통일된 표준이 없다면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18세기 말부터 국제적인 표준을 만들려는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졌다.

1791년에 처음으로 프랑스 과학아카데미는 북극에서 파리를 지나 적도까지 이르는 자오선 길이의 1000만분의 1을 ‘1미터’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자오선 길이는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 정의에 따라 ㉡ 눈금자를 만드는 일은 쉽지 않았다.

그 뒤 1875년에 미터 조약이 만들어졌고 이에 따라서 1889년에 열린 제1차 국제도량형총회(CGPM)는 안정성 높은 백금-이리듐 합금 막대로 제작된 ‘미터 원기(原器)’를 새 표준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만들어진 국제 미터 원기는 온도나 압력에 따라 물리적 특성이 변하거나 훼손될 경우, 원래와 똑같이 복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변하지 않는 자연 대상을 바탕으로 언제든지 복원 가능한 표준을 새로 개발할 필요가 있었다.

20세기 과학의 발달로 원자 수준의 현상에 대한 정밀 측정이 가능해졌다. 원자는 내부에 일정한 에너지 준위(準位)들이 형성되어 있다. 이때 원자 안의 전자가 높은 준위에서 낮은 준위로 전이될 때 방출되는 복사선들은 각각 불변하는 고유 파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1960년 제11차 총회는 크립톤이라는 원자에서 나오는 오렌지색 복사선의 파장을 길이의 표준으로 정의하였다.

“미터는 크립톤-86 원자의 $2p_{10}$ 과 $5d_5$ 준위 간의 전이에 대응하는 복사선의 진공 중 파장의 1 650 763.73 배와 같은 길이이다(CGPM, 1960).”

(주: 국제표준단위계(SI)는 큰 수를 3자리씩 구분하여 적음)

그러나 이 정의도 크립톤 램프에서 나오는 빛의 세기가 약하므로 실제로 활용하려면 여전히 어려움이 많았다.

1960년대 이후 개발된 레이저 빛은 멀리까지 퍼지지 않고 직진하기 때문에 길이 측정에 유용함이 입증되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빛의 속력은 항상 일정하므로, 레이저를 이용하여 빛의 속력을 길이 표준에 이용자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 의견은 1983년 제17차 총회에 반영되어 미터 정의가 현재와 같이 개정되었다.

“미터는 빛이 진공에서 299 792 458분의 1초 동안 진행한 경로의 길이이다(CGPM, 1983).”

여기서 빛의 속력이 정확한 값으로 고정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속력을 정하려면 이동 거리와 시간을 측정해야만 했다. 그런데 측정은 항상 오차를 가지게 마련이므로 측정으로 표준을 정하면 값을 확정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측정된 빛의 속력은 299 792 458(1.2) m/s라는 식으로 복잡하게 표현되었는데 여기서 괄호는 측정 불확정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새로운 정의에서 빛의 속력은 불확정도가 0인 정확한 값으로 규정된다. 그 대신 길이의 정의에 따라 속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빛의 속력을 기준으로 길이를 정의하게 된 것이다.

24. 위 글의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은?

- ① 표준의 정의는 더 좋은 측정 방법이 발견되더라도 변경하면 안 된다.
- ② 자오선의 길이는 언제든 측정이 가능하므로 복원 가능한 표준이 될 수 있다.
- ③ 원자에서 방출되는 복사선의 파장은 변하지 않으므로 표준이 될 수 있다.
- ④ 1960년의 길이 표준과 1983년의 길이 표준은 빛의 동일한 속성을 이용했다.
- ⑤ 백금-이리듐 합금은 인공물이기 때문에 국제적 표준이 될 수 없다.

25. ㉠의 사례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휴대폰 충전기가 모델마다 달라서 호환 문제가 발생한다.
- ② 병원의 체온계마다 측정한 온도가 달라서 오진이 우려된다.
- ③ 건전지 전압이 제조 회사마다 달라서 전자 제품이 고장 난다.
- ④ 생산된 부품들의 치수가 공장마다 달라서 자동차가 고장 난다.
- ⑤ 시계의 시각이 은행마다 달라서 사업자 간에 손해 배상 소송이 제기된다.

26. [A]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속력이 길이의 표준을 결정하게 되었다.
- ② 길이의 측정값은 불확정도가 0이 될 수 없다.
- ③ 빛은 진공에서 1초에 299 792 458 미터를 진행한다.
- ④ 시간의 표준이 길이의 표준보다 먼저 결정되어야 한다.
- ⑤ 빛의 속력은 오차가 0이 되도록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27. ㉡은 ‘눈금’과 ‘자’가 [형체]와 [형체가 새겨지는 대상]이라는 의미 관계로 결합한 합성어이다. 다음 중 이와 같은 의미 관계를 보이는 것은?

- ① 꽃무늬 ② 삼각자 ③ 저울눈
- ④ 그림물감 ⑤ 모눈종이

(가) -백석, 「여승(女僧)」-

유명한 시네요 ㅋㅋ
근데 별 내용이 없습니다 ㅋㅋ

**여승(女僧)은 합장(合掌)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
쓸쓸한 낮이 넷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佛經)처럼 서러워졌다**

여승이 절을 하고 있네요 ㅎㅎ
쓸쓸하고 서럽다는 걸 보니까
여승이 된 사연이 있겠죠?
마음고생이 심해서 그런지 얼굴도 많이 늙었네요 ㅠㅠ

내음새, 넷날 - 시적허용
했다 났다 늙었다 서러워졌다 - 각운
쓸쓸한, 서러워졌다 - 정서직접

**평안도(平安道)의 어늬 산(山) 깊은 ㉠금덤판
나는 파리한 여인(女人)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女人)은 나 어린 딸아이를 따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었는데
그 여인은 나이 어린 딸을 울면서 때리네요
애가 뭔가 잘못해서 때리긴 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거죠 ㅠㅠ

차게 - 촉각

**십벌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십 년(十年)이 갔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남편이 나간지 십년이나 지났고
어린 딸도 죽었네요..
남편과 딸을 여의고 여승이 될 수 밖에 없는
슬픈 상황이 있어서 그렇게 서글팠던 거였습니다 ㅠㅠ

산(山)평도 설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산(山)절의 마당귀에 여인(女人)의 머리오리가 눈물 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여승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머리를 자르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스쳤을까요 ㅠㅠ

산평도 설게 울은 - 의인

머리오리가 눈물 방울과 같이 떨어진 - 하강이미지

(나) -나희덕, 「못 위의 잠」-

못 위에서 자면 힘들건데.. ㅋㅋ

저 지붕 아래 제비집 너무도 작아
갓 태어난 새끼들만으로 가득 차고
어미는 등지를 날개로 덮은 채 간신히 잠들었습니다
바로 그 옆에 누가 박아 놓았을까요, 못 하나
그 못이 아니었다면
아비는 어디서 밤을 지냈을까요
못 위에 앉아 밤새 꾸벅거리는 제비를
눈이 뜨겁도록 올려다봅니다

엄마는 애기들을 덮고 자고 아빠는 못 위에서 힘들게 잠을 잡니다 ㅠㅠ

아빠의 희생이 보이네요..

그 아빠제비를 눈이 뜨겁도록 올려다보는 건

자신의 아빠모습이 생각나기 때문이겠죠?

누가 박아 놓았을까요 못하나 - 도치, 의문

뜨겁도록 - 촉각

습니다, 지냈을까요 등등 - 대화체

종암동 ㊤버스 정류장, 흙바람은 불어오고

한 사내가 아이 셋을 데리고 마중 나온 모습

수많은 버스를 보내고 나서야

피곤에 지친 한 여자가 내리고, 그 창백함 때문에

반쪽 난 달빛은 또 얼마나 창백했던가요

이제 아빠제비를 닮은 아빠의 모습이 나오네요 ㅎㅎ

창백 - 색채

달빛 - 시각

아이들은 달려가 엄마의 옷자락을 잡고
제자리에 선 채 달빛을 좀 더 바라보던
사내의, 그 마음을 오늘 밤은 알 것도 같습니다

아빠제비를 보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네요

실업의 호주머니에서 만져지던
때 묻은 호두알은 쉽게 깨어지지 않고
그럴듯한 ⊕집 한 채 짓는 대신
못 하나 위에서 견디는 것으로 살아온 아비,
거리에선 아직도 흠바람이 몰려오나 봐요
돌아오는 길 희미한 달빛은 그런대로
식구들의 손잡은 그림자를 만들어 주기도 했지만
그러기엔 ⊕골목이 너무 좁았고
늘 한 걸음 늦게 따라오던 아버지의 그림자
그 꾸벅거림을 기억나게 하는
못 하나, 그 위의 잠

길이 좁아 같이 손잡고 걷진 못하고
뒤에서 따라오는 아버지의 모습이 마치 아빠제비 같네요..
등지가 좁아서 같이 자지 못하고 못 위에서 잠을 자던 아빠제비를 보고
화자가 아빠의 모습을 떠올린 이유를 알 것 같네요
버스 정류장에서 흠바람이 불었고
거리에선 아직도 흠바람이 몰려온다는 구절에서
흠바람을 반복해서 쓴 걸 보니 뭔가 의도가 있겠죠
아마 외로운 아빠의 모습을 부각시키려는 게 아닐까 생각되네요
집으로 가는 골목길이 좁은 건 아마도
아빠의 실업때문에 달동네에 살기 때문이 아닐까요?
시인은 골목이 좁은 골목에 살았던 실제 경험이 있거나
이런 장면을 직접 봤었겠죠?
시의 디테일이 감탄스럽네요 ㅎㅎ
달빛을 계속 반복적으로 써서
은은하게 달빛이 비추는 모습을 상상하게 하는 것도 대단한듯 ㅋㅋ

흠바람, 못하나 - 반복

(다)-이수익, 「결빙(結氷)의 아버지」-

제목을 보니까
추위속에서 희생하는 아버지 같은 필이 딱 오네요 ㅋㅋ

어머님,

제 예닐곱 살 적 겨울은
목조 적산 가옥 이층 다다미방의
별거숭이 유리창 깨질 듯 울어 대던 외풍 탓으로
한없이 추웠지요, 밤마다 나는 벌벌 떨면서
아버지 가령이 사이로 시린 발을 밀어 넣고
그 가슴팍에 벌레처럼 파고들어 얼굴을 묻은 채
겨우 잠이 들곤 했었지요.

화자는 어릴 때 가난해서 추운 집에서 살았네요
아버지한테 몸을 밀착해서 추위를 견디려는 화자의 모습이 묘사돼있네요 ㅋㅋ
아버지는 화자에게 어떤 존재죠?
추위를 이기게 해주는 대상이죠 ㅎㅎ

어머님 - 청자설정(자동으로 대화체)
추웠지요, 시린 - 촉각
벌벌 - 음성상징어

요즈음도 추운 밤이면
곁에서 잠든 아이들 이불깃을 덮어 주며
늘 그런 추억으로 마음이 아프고,
나를 품어 주던 그 가슴이 이제는 한 줌 뺏가루로 삭아
붉은 흙에 자취 없이 뒤섞여 있음을 생각하면
옛날처럼 나는 다시 아버지 곁에 눕고 싶습니다.

추운밤이면 자신이 아이들의 이불을 덮어줄 때
예전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겠죠
아버지는 나에게 추위를 견디게 해주는 존재니까요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셔서 곁에 눕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네요 ㅠㅠ

추운 - 촉각
나를 품어 주던 ~ 삭아 - 형상화
붉은 - 색채

그런데 어머님,
오늘은 영하(零下)의 한강교를 지나면서 문득
나를 품에 안고 추위를 막아 주던
예닐곱 살 적 그 겨울밤의 아버지가
이승의 물로 화신(化身)해 있음을 보았습니다.

**품 안에 부드럽고 어린 물살은 무사히 흘러
 바다로 가라고,
 팡 팡 얼어붙은 잔등으로 흑한을 막으며
 하얗게 얼음으로 엮드려 있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주 추운날에 한강다리를 지나다가
 얼어붙은 한강물에서 아버지를 떠올리고 있네요
 추운날 자신의 몸으로 자식들의 추위를 막아주던 아버지와
 얼어붙은 몸으로 어린 물살을 바다로 흘러보내주는 얼음.

아버지가 이승의 물로 화신 - 형상화
 팡팡 - 음성상징어
 추위, 흑한 - 촉각
 하얗게 - 색채
 아버지 - 반복

◎20번.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반어적 표현을 구사하여 주제를 부각시킨다.
- 반어 없구요 ㅋ
- ② 시간의 변화가 시상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안하는지는 사실 별로 안 중요하구요
시간의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가)는 지아비가 나간지 십년
(나)는 시간이 지나 회상
(다)도 시간이 지나 회상
- ③ 부정적 현실을 포용하려는 여유로운 정신이 엿보인다.
- 부정적 상황을 아무렇지 않은 듯 여유롭게 받아들이는 건 없습니다 ㅎㅎ
- ④ 대화체를 사용하여 독자를 시 속으로 깊숙이 끌어들인다.
-(가)에는 없습 ㅋ
- ⑤ 화자와 대상의 거리를 좁혀 자연 친화적 태도를 드러낸다.
- 자연친화 ㅋㅋ 전혀 없음 ㅋㅋ 화자와 대상간의 거리 묻는건 완전 옛날 유형이네요 ㅋㅋ
좁히는지 넓히는지 알 필요없습니다 ㅋㅋ
나와도 이런식으로 다른 판단부위 주니까 걱정 NO

답 2번.

㉔21번. (가)와 (나)를 비교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사람이, (나)는 자연물이 시상을 유발한다.
- 시의 화제를 물어보는 거네요. 뭘 보고 시를 썼니? 이렇게 묻는 겁니다 ㅋㅋ
(가)는 여승, (나)는 제비 ㅇㅋ
- ② (가)는 (나)에 비해 내면을 성찰하는 태도가 잘 드러난다.
- 내면 성찰..? (가)는 여승을 관찰하고 있는거니까 아니죠ㅋㅋ
- ③ (나)는 (가)에 비해 간접적으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가)는 정서를 직접 드러낸 표현들이 있는데 (나)는 전혀 없네요 ㅇㅋ
- ④ (나)는 (가)에 비해 친근한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
- 대화체 쓰니까 맞음 ㅇㅋ
- ⑤ (가)와 (나)는 비유적으로 인물을 표현하고 있다.
- (가) 냇날같이, 가을밤같이,
(나)는 제비에 비유 ㅇㅋ

답 2번.

㉔22번. ㉔~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㉔: '여인'이 생계를 유지하는 공간
- 옥수수 파는 곳이니까 맞죠
- ② ㉔: '여인'이 비극적 상황에서 대안으로 선택한 공간
- 자식과 남편이 죽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곳으로 맞습니다
- ③ ㉔: '사내'가 자신의 처지를 확인하는 공간
- 그 자리에서 달빛을 바라보면 자신의 처지를 실감하는 공간으로 맞습뵈
- ④ ㉔: '사내'가 지향하는 삶을 상징하는 공간
- 가족이 다 함께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 맞네요 ㅎㅎ
- ⑤ ㉔: '사내'가 정서적 유대감을 느끼게 되는 공간
- 혼자 떨어져서 가는데 무슨 유대감인가요..
외로움을 더 느끼겠죠ㅠㅠ

답 5번.

㉔23번.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외풍'은 아버지의 사랑을 대비적으로 부각시키는 소재이다.
- 외풍은 춥게 하고 아버지의 사랑은 따뜻하게 해주는 거니까 ㅇㅋ
- ② '이승의 물로 화신'에는 삶에 대한 윤희론적 인식이 엿보인다.
- 다시 태어난 거니까 윤희론적인 거 ㅇㅋ. 강 선지채우려고 낸거 ㅋㅋ
- ③ '어린 물살'은 아버지의 보호를 받는 자식을 형상화한 것이다.
- 설명함 ㅇㅋ

④ ‘얼어붙은 잔등’은 화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 사건을 추측하게 한다.

- 먼소리 쿵쿵 이런 헛소리에 당하면 안됨 쿵쿵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유는 알 수 없고,

단지 얼어붙은 잔등으로 추위를 막아주는 것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린 것.

아버지가 왜 떠올랐는지 생각을 해 봐야 하고

글의 큰 흐름을 보면 전혀 헛갈릴 필요가 없는 선지.

⑤ ‘얼음’은 일반적인 속성과는 달리 따뜻함이 투영된 이미지이다.

- ○○. 시에서 아빠와 같은 역할을 하고 어린 물살의 추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함.

답 4번.

8

언어 영역

27. <보기>의 내용을 근거로 볼 때, 단어의 구성이 ㉠와 같은 것은?

<보 기>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말이다. 어근에는 여러 가지 품사의 말이 쓰일 수 있다. 가령 ‘가위질’은 접미사 ‘-질’이 명사 어근 ‘가위’에 붙은 말이고, ‘헛디디다’는 접두사 ‘헛-’이 동사 어근 ‘디디-’에, ‘새까맣다’는 접두사 ‘새-’가 형용사 어근 ‘까맣-’에 붙어 만들어진 말이다.

- ① 길이 ② 기쁨 ③ 털보
 ④ 오뎅이 ⑤ 달리기

[28~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노래가 낮기는 그중 나아도
 구름까지 갔다간 되돌아오고,
 네 발굽을 쳐 달려간 말은
 바닷가에 가 멎어 버렸다.
 활로 잡은 산돼지, 매[鷹]로 잡은 산새들에게도
 이제는 벌써 입맛을 잃었다.
 꽃아. 아침마다 개벽하는 꽃아.
 네가 좋기는 제일 좋아도,
 물낫바닥에 얼굴이나 비취는
 해염도 모르는 아이와 같이
 나는 네 닫힌 문에 기대섰을 뿐이다.
 문 열어라 꽃아. 문 열어라 꽃아.
 벼락과 해일만이 길일지라도
 문 열어라 꽃아. 문 열어라 꽃아.

[원주(原註)] 사소: 사소는 신라 시조 박혁거세의 어머니. 처녀로 잉태하여, 산으로 신선수행(神仙修行)을 간 일이 있는데, 이 글은 그 떠나기 전 그의 집 꽃밭에서의 독백.

- 서정주, 『꽃밭의 독백-사소(娑蘇) 단장』 -

(나) 어둠이 오는 것이 왜 두렵지 않으리
 불어 닳치는 비바람이 왜 무섭지 않으리
 잎들 더러 썩고 떨어지는 어둠 속에서
 가지들 휘고 꺾이는 비바람 속에서

보인다 꼭 잡은 너희들 작은 손들이
 손을 타고 흐르는 숨죽인 흐느낌이
 어둠과 비바람까지도 삭여서
 더 단단히 뿌리와 몸통을 키운다면
 너희 왜 모르랴 밝는 날 어깨와 가슴에
 더 많은 꽃과 열매를 달게 되리라는 걸
 산바람 바닷바람보다도 짓궂은 이웃들의
 비웃음과 발길질이 더 아프고 서러워
 산비알과 바위너설에서 목 움츠린 나무들이
 다시 고개 들고 절로 터져 나올 잎과 꽃으로
 숲과 들판에 떼 지어 설 나무들이

- 신경림, 『나무를 위하여』 -

(다) 사립을 젓혀 쓰고 망혜를 조여 신고,
 조대(釣臺)*로 내려가니 내 노래 한가하다.
 원근 산천이 홍일(紅日)을 띄웠으니,
 만경창과는 모두 다 금빛이라.
 낚시를 드리우고 무심히 앉았으니,
 은린옥척(銀鱗玉尺)*이 절로 와 무는구나.
 구태여 내 마음이 취어(取魚)가 아니로다 지취(志趣)를
 취함이라.
 낚대를 떨쳐 드니 사면에 잠든 백구(白鷗),
 내 낚대 그림자에 저 잡을 날만 여겨 다 놀라 날겠구나.
 백구야 날지 마라 너 잡을 내 아니다.
 네 본디 영물이라 내 마음 모를소냐.
 평생의 곱던 입을 천 리에 이별하고,
 사랑은커니와 그리움을 못 이기어,
 수심이 첩첩하니 마음을 둘 데 없어,
 흥 없는 일간죽(一竿竹)을 실없이 드렸은들,
 고기도 상관 앓거늘 하물며 너 잡으랴.
 그래도 내 마음을 아무도 못 믿거든,
 너 가진 긴 부리로 내 가슴 쪼아 헤쳐,
 흥중의 붉은 마음 보면은 아오리라.
 공명도 다 던지고 성은을 갚으려니,
 갚을 법도 있거니와 이 사이 일 없으니,
 성세(盛世)에 한민(閭民)* 되어 너 좇아 다니려니,
 날 보고 날지 마라 네 벗님 되오리라.

- 안조원, 『만언사』 -

- * 조대: 낚시를 하는 곳.
- * 은린옥척: 모양이 좋고 큰 물고기.
- * 한민: 한가로운 백성.

28.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의 실상에 어울리는 다양한 색채어를 사용하고 있다.
- ② 의인화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 ③ 정형적인 운율을 살려 시적 안정감을 확보하고 있다.
- ④ 명암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유장한 어조로 경건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29. (가)와 (다)의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다)	시어의 의미와 기능
①	바닷가	조대	화자가 현재 머무는 장소
②	산새	은린옥척	화자의 지향에서 벗어나 있는 대상
③	개벽	성세	화자의 처지가 변화하는 계기
④	물낫바다	그림자	화자가 수행하는 자기 성찰의 매개물
⑤	아이	벗님	화자가 부러워하는 대상

30. (나)와 (다)의 시상 전개 방식을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와 (다) 모두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며 시상을 전개한다.
- ② (나)와 (다) 모두 계절의 변화를 축으로 삼아 시상을 전개한다.
- ③ (나)는 (다)와 달리 여러 대상으로 관심을 옮겨 가며 시상을 전개한다.
- ④ (나)는 시각적 이미지를, (다)는 청각적 이미지를 위주로 시상을 전개한다.
- ⑤ (나)는 시적 화자의 심리 묘사를, (다)는 외부 대상 묘사를 위주로 시상을 전개한다.

31. 시인이 <보기>의 옛 기록을 바탕으로 (가)를 썼다고 할 때, 창작 과정을 추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경주 선도산(仙桃山)에 신모(神母)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사소’라 했다. 일찍이 신선술을 터득하여 멀리 바다 건너 서쪽 나라로부터 해동(海東)으로 들어왔다. 솔개가 날아가 내리는 곳에 집을 지으라는 계시를 받고서 선도산에 정착하여 신선이 되었다. 사소가 처음 삼한 땅에 이르러 자식을 낳으니, 그가 동국(東國)의 첫 왕이 되었다. 무릇 혁거세와 알영의 유래를 말하는 것이리라.

- ① ‘사소’의 내적 갈등에 초점을 맞추어 <보기>를 새롭게 해석했군.
- ② <보기>에 없는 ‘노래’와 ‘구름’ 같은 시어로 바다 건너 고향을 그리는 ‘사소’의 심정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어.

- ③ ‘꽃’은 시적 주제를 부각하기 위해 <보기> 밖에서 가져온 소재야.
- ④ <보기>와 달리 ‘사소’가 ‘처녀로 잉태’했다고 한 것은 ‘사소’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기 위한 설정이야.
- ⑤ <보기>를 근거로 원주를 붙인 데에는 원주를 참조하여 시를 이해하기 바라는 시인의 의도가 담겨 있어.

32. (나)의 시적 화자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미래에 대한 낙관적 기대를 경계하고 있다.
- ② 작은 존재들의 연대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시련을 극복한 대상을 격려하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④ 과거의 고난 체험에 대한 관조적 심정을 보여주고 있다.
- ⑤ 약자들에게 외부의 도움에 대한 열린 자세를 권고하고 있다.

33. <보기>의 ㉠~㉤ 중 (다)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은?

<보 기>

옛사람들에게 ‘유배(流配)’는 무엇이였을까? 유배 가사를 통해 볼 때, 그것은 ㉠ 외롭고도 힘든 격리인 동시에 ㉡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계기이기도 했다. 귀양살이의 심경은 흔히 ㉢ 자연물을 매개로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는 형태로 정형화되었지만, 때로는 자기 부정이나 ㉣ 적대자에 대한 원망으로 표출되기도 했다. ㉤ 떠나온 곳에 마음을 두고 복귀를 욕망하는 모습을 찾아보는 것 또한 어렵지 않다. 이러한 다양한 면모가 엿히는 데에 유배 가사의 묘미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가) -서정주, 「꽃밭의 독백-사소(娑蘇) 단장」-

노래가 낮기는 그중 나아도
구름까지 갔다간 되돌아오고,
네 발굽을 쳐 달려간 말은
바닷가에 가 멧어 버렸다.

노래는 어떤 대상인가요? 구름까지 갔다가 되돌아오는 대상이죠
말은 바닷가에서 멧어 버리는 대상. 둘이 시에서 하는 역할이 같네요
한계가 있는, 넘어가지 못하는 존재들이네요 ㅎㅎ
그럼 구름이랑 바닷가는요?
경계선, 한계의 의미겠죠 ㅎㅎ

활로 잡은 산돼지, 매[鷹]로 잡은 산새들에게도
이제는 벌써 입맛을 잃었다.

맛있는 것들인데 이제 입맛을 잃었대요
왜 그럴까요?
서정주의 시 추천사에서도 나왔었죠?
어디론가 가고 싶을 때 현실이 싫어서일 수 있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흥미를 잃은 대상들이 나온 걸로 봐선
어디로 가려는 모양입니다.
산돼지, 산새들은 추천사에서 나비새끼, 피꼬리와 같은 역할을 하죠 ㅎㅎ
싫증난 현실의 것들.

꽃아. 아침마다 개벽하는 꽃아.
네가 좋기는 제일 좋아도,
물낫바닥에 얼굴이나 비취는
헤엄도 모르는 아이와 같이
나는 네 달힌 문에 기대섰을 뿐이다.

먼소린지 잘 모르겠죠? ㅋㅋ
꽃이 제일 좋은데 꽃이 달혀있네요 ㅎㅎ
그래서 지금 달힌 문에 기대서있습니다 ㅎㅎ
꽃은 아침마다 개벽한다 했으니
아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겠죠 ㅎㅎ

꽃아 - 청자설정(자동으로 대화체),의인(꽃이 말을 알아듣는다고 여기고 불렀으므로), 반복

문 열어라 꽃아. 문 열어라 꽃아.
벼락과 해일만이 길일지라도
문 열어라 꽃아. 문 열어라 꽃아.

빨리 문 열라고 하네요 ㅎㅎ

왜 문을 열라고 할까요?

지금 현실에서 벗어나 다른 곳으로 가고 싶은 거겠죠.

근데 거기 뭐가 좋은게 있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죠

벼락과 해일만 있더라도 가겠다!! 라고 하는 걸로 보아서

새로운 곳에 대한 열망때문에 가고 싶어하는 것 같네요 ㅎㅎ

첫 연에 나왔던 노래랑 말이 나온 이유는

다른 수단으로는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직 꽃을 통해서만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인 것 같네요 ㅋㅋ

문 열어라 꽃아 - 반복

[원주(原註)]사소:사소는 신라 시조 박혁거세의 어머니. 처녀로 잉태하여, 산으로 신
선수행(神仙修行)을 간 일이 있는데, 이 글은 그 떠나기 전 그의 집 꽃밭에서의 독
백.

(나) -신경림, 「나무를 위하여」-

나무를 좋아하는 작가인가보네요 ㅋㅋ

어둠이 오는 것이 왜 두렵지 않으리
불어 닥치는 비바람이 왜 무섭지 않으리

나무도 무섭다 그거죠 ㅋㅋ

어둠도 무섭고 비바람도 무섭고 ㅋㅋ

~하는 것이 왜 ~ 하지 않으리 - 대구, 설의

잎들 더러 썩고 떨어지는 어둠 속에서
가지들 휘고 꺾이는 비바람 속에서
보인다 꼭 잡은 너희들 작은 손들이
손을 타고 흐르는 숨죽인 흐느낌이

그 무서운 어둠과 비바람 속에서
나무들의 꼭 잡은 작은 손들이 보이네요
무서워서 서로 흐느끼면서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 ㅋㅋ

~하고 ~하는 ~속에서 - 대구
보인다 ~손들이 ~ 흐느낌이 - 도치, 의인(나무가 손? ㅋㅋ)

**어둠과 비바람까지도 삭여서
더 단단히 뿌리와 몸통을 키운다면
너희 왜 모르랴 밝는 날 어깨와 가슴에
더 많은 꽃과 열매를 달게 되리라는 걸**

무서운 어둠과 비바람을 삭이고 일어나면
좋은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네요 ㅎㅎ

너희 왜 모르랴 ~ 되리라는 걸 - 도치, 설의

**산바람 바닷바람보다도 짓궂은 이웃들의
비웃음과 발길질이 더 아프고 서러워
산비알과 바위너설에서 목 움츠린 나무들아
다시 고개 들고 절로 터져 나올 잎과 꽃으로
숲과 들판에 떼 지어 설 나무들아**

나쁜 이웃을 만났네요 ㅠㅠ
비웃고 발길질이 아파도 고개를 들고 다시 떼지어 일어서라는 내용이네요 ㅎㅎ
손잡고, 떼짓고 이런 구절들을 보면 나무들의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걸로 보이네요 ㅎㅎ
나무는 얻어터지는 약한 존재들이구요 ㅎㅎ

서러워 - 정서직접
나무들아 - 청자설정(자동으로 대화체), 반복

(다) -안조원, 「만언사」-

**사림을 짓혀 쓰고 망혜를 조여 신고,
조대(鈎臺)*로 내려가니 내 노래 한가하다.**

그대로 읽기 잡시다
사림은 머다? 쓰는 거
망혜는 머다? 신는 거 ㅋ
모자랑 신발이겠네요 ㅋㅋ

암튼 옷입고 낚시대로 내려가니 내 노래가 한가합니다
내가 한가한 기분을 느끼고 있다는 말이죠 ㅋㅋ
낚시할 생각에 썩났습니다 ㅋㅋ

~를 ~하여 ~ 하고 - 대구

**원근 산천이 홍일(紅日)을 띄웠으니,
만경창파는 모두 다 금빛이라.
낚시를 드리우고 무심히 앉았으니,
은린옥척(銀鱗玉尺)=이 절로 와 무는구나.
구태여 내 마음이 취어(取魚)가 아니로다 지취(志趣)를 취함이라.**

산천 머여? 자연 ㅇㅋ
자연이 어째? 홍일을 띄웠대요
해가 저물어서 노을이 진다는 말이겠죠 ㅎㅎ
해가 저무니까 만경창파는 다 금빛.
노을을 말합니다 ㅋㅋ
만경창파는 뭘까요?
자연이죠 ㅋㅋ
좀더 자세히 보면 파는 파도예요
그니까 바다겠죠 ㅎㅎ
낚시대로 내려왔으니 낚시를 해야겠죠?
가만히 있는데도 물고기가 막 잡히네요 ㅋㅋ
강태공인가 ㅋㅋ
내 마음이 취어가 아니라는 건
고기잡을 생각이 없다는 거죠 ㅎㅎ
낚시하면서 고기 안 잡으면 뭐해요?
그냥 농땡이 부리는 거죠 ㅎㅎ
아까 내 노래 한가하다 라고 했잖아요 ㅎㅎ
지취를 취함이다 라는 것은 농땡이 부린다는 얘기입니다 ㅎㅎ

홍일, 만경창파, 금빛, 은린옥척 - 색채(만경창파에서 창은 푸를창)
금빛이라 - 영탄

**낚대를 떨쳐 드니 사면에 잠든 백구(白鷗),
내 낚대 그림자에 저 잡을 날만 여겨 다 놀라 날겠구나.
백구야 날지 마라 너 잡을 내 아니다.
네 본디 영물이라 내 마음 모를소냐.**

평생의 곱던 입을 천 리에 이별하고,
사랑은커니와 그리움을 못 이기어,
수심이 첩첩하니 마음을 들 데 없어,
흥 없는 일간죽(一竿竹)을 실없이 드렸은들,
고기도 상관 앓거늘 하물며 너 잡으랴.

유배당한 사람들의 전유물인
자연물과 친구되기를 시전하고 있습니다 ㅋㅋ
백구는 강아지가 아니라 갈매기입니다 ㅋㅋ
암튼 백구가 낚시질에 놀라 날아가는데
자신은 널 잡지 않는다며 대화를 시도합니다 ㅋㅋ
지금은 입과 이별한 상황이라 너무 그립고 힘들어서
고기도 안잡는데 널 잡겠냐? 이려고 있네요 ㅋㅋ

백구야 - 색채, 청자설정, 의인
날겠구나 - 영탄
모를소냐, 잡으랴 - 설의

그래도 내 마음을 아무도 못 믿거든,
너 가진 긴 부리로 내 가슴 쏘아 헤쳐,
흉중의 붉은 마음 보면은 아오리라.

그래도 못 믿으면 내 맘을 까서 봐라 이려고 있습니다 ㅋㅋ

붉은 - 색채

공명도 다 던지고 성은을 갚으려니,
값을 법도 있거니와 이 사이 일 없으니,
성세(盛世)에 한민(閭民)* 되어 너 좇아 다니려니,
날 보고 날지 마라 네 벗님 되오리라.

공명도 필요없으니까 벼슬 자잘한 거라도 달라.
능력도 있고 일도 없으니까 마침 일도 없다. ㅋㅋ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ㅋㅋ
그래도 계속 매달리지 않고
갈매기한테 다시 친구가 되달라고 말을 거네요 ㅎㅎ
한가할한 또 나왔네요? ㅎㅎ
문을 여니 달이 보이네!!! 아~ 한가하다 ㅋㅋ

㉔28번.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의 실상에 어울리는 다양한 색채어를 사용하고 있다.
- 색채는 (다)에만 있네요
- ② 의인화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 셋 다 있습뵐 ㅋㅋ
- ③ 정형적인 운율을 살려 시적 안정감을 확보하고 있다.
- (다)가 4음보를 쓰고 있쵸 ㅎㅎ
- ④ 명암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 명암대비 없네요 ㅋ. 밝고 어두운 게 나와야 되쵸 ㅎㅎ
- ⑤ 유장한 어조로 경건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유장하다는 이때 처음 나온 표현이예요 ㅎㅎ 흔히 쓰는 말도 아닌데다가 처음 나왔으니 이걸 판단하라고 낸 문제는 아니쵸? ㅎㅎ 그럼 어휘테스트가 되쵸아요 ㅎㅎ 경건한 분위기만 판단하면 되는데이긴 셋다 아니네요 ㅋㅋ
유장하다는 건 '급하지 않고 느릿하다' 라는 뜻입니다 ㅎㅎ
저도 이 때 처음 봤어요 ㅋㅋ

답 2번.

㉔29번. (가)와 (다)의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바닷가/조대 : 화자가 현재 머무는 장소
-바닷가는 한계, 조대는 잠시 놀러간 곳
- ②산새/은린옥척 : 화자의 지향에서 벗어나 있는 대상
- 산새는 입맛 떨어진 대상, 은린옥척은 굳이 잡고 싶지 않은 대상이므로 둘 다 지향에서 벗어나 있음 ㅇㅋ
- ③개벽/성세 : 화자의 처지가 변화하는 계기
- 개벽은 새로운 세계로 가는 계기가 맞고, 성세는 전혀 상관 없구요 ㅋㅋ
- ④물낫바닥/그림자 : 화자가 수행하는 자기 성찰의 매개물
- 두 시 모두 자아성찰은 없습니다 ㅋㅋ
- ⑤아이/벗님 : 화자가 부러워하는 대상
- 아이는 화자의 모습이고, 벗님은 친해지고 싶은 대상이쵸 둘다 땡.

답 2번.

㉔30번. (나)와 (다)의 시상 전개 방식을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나)와 (다) 모두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며 시상을 전개한다.
- 둘다 있네요 ㅇㅋ
- ②(나)와 (다) 모두 계절의 변화를 축으로 삼아 시상을 전개한다.
- 둘다 없구요 ㅋㅋ

③(나)는 (다)와 달리 여러 대상으로 관심을 옮겨 가며 시상을 전개한다.

- (나)는 관심이 오로지 나무에게 있습니다..

④(나)는 시각적 이미지를, (다)는 청각적 이미지를 위주로 시상을 전개한다.

- (나)는 딱히 두드러지는 감각은 없지만 굳이 따지자면 청각이라고 볼 수 있고

(다)는 시각으로 범벅이 돼있네요 ㅋㅋ

⑤(나)는 시적 화자의 심리 묘사를, (다)는 외부 대상 묘사를 위주로 시상을 전개한다.

- 이것도 둘이 바꿨네요 ㅎㅎ

답 1번.

㉔31번. 시인이 <보기>의 옛 기록을 바탕으로 (가)를 썼다고 할 때, 창작 과정을 추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경주 선도산(仙桃山)에 신모(神母)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사소'라 했다. 일찍이 신선술을 터득하여 멀리 바다 건너 서쪽 나라로부터 해동(海東)으로 들어왔다. 술개가 날아가 내리는 곳에 집을 지으라는 계시를 받고서 선도산에 정착하여 신선이 되었다. 사소가 처음 삼한 땅에 이르러 자식을 낳으니, 그가 동국(東國)의 첫 왕이 되었다. 무릇 혁거세와 알영의 유래를 말하는 것이리라.

①'사소'의 내적 갈등에 초점을 맞추어 <보기>를 새롭게 해석했군. - ㅇㅋ

②<보기>에 없는 '노래'와 '구름' 같은 시어로 바다 건너 고향을 그리는 '사소'의 심정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어. - 바다 건너 고향을 그린다는 내용이 (가)시의 주제인가요?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고 새로운 곳을 향한 갈망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잖아요 ㅎㅎ 그니까 땡

③'꽃'은 시적 주제를 부각하기 위해 <보기> 밖에서 가져온 소재야. - 보기에 없네요 ㅇㅋ

④<보기>와 달리 '사소'가 '처녀로 잉태'했다고 한 것은 '사소'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기 위한 설정이야. - 처녀가 잉태한 건 특별하게 맞죠 ㅇㅋ

⑤<보기>를 근거로 원주를 붙인 데에는 원주를 참조하여 시를 이해하기 바라는 시인의 의도가 담겨 있어. - 하나하나 한 얘기네요 ㅋㅋ

답 2번.

㉔32번. (나)의 시적 화자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특정시에 대해 적절한 거 찾으라는 건 틀린 걸 지우라는 게 아니라 딱 맞는 걸 찾으라는 말이죠 ㅎㅎ 딱 2번이 되겠네요 ㅎㅎ

그치만 각 선지에 대해서도 설명하겠습니다 ㅋㅋ

① 미래에 대한 낙관적 기대를 경계하고 있다. - 낙관적 기대를 하지 말라는 내용 없구요 ㅎㅎ 오히려 화자 자신이 낙관적 전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ㅋㅋ

② 작은 존재들의 연대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 작은 존재들은 나무고, 나무들이 서로 손을 잡고 이겨낼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맞죠 ㅎㅎ

③ 시련을 극복한 대상을 격려하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 답을 이거랑 많이 헷갈려하는데 이건 완전 시력테스트예요 ㅋㅋ 나무는 시련을 극복한 대상이 아니라 시련을 극복할 대상입니다. 아직 시련을 극복하진 않았어요 ㅋㅋ 과거형을 썼기때문에 틀린 선지가 되겠네요 ㅎㅎ

④ 과거의 고난 체험에 대한 관조적 심정을 보여주고 있다.

- 응원 엄청 하고 있는데 무슨 관조 ㅋㅋ

⑤약자들에게 외부의 도움에 대한 열린 자세를 권고하고 있다.

- 외부의 도움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이겨내라고 하고 있죠 ㅎㅎ

답 2번

㉔33번. <보기>의 ㉑~㉔ 중 (다)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은?

<보 기>

옛사람들에게 ‘유배(流配)’는 무엇이었을까? 유배 가사를 통해 볼 때, 그것은 ㉑외롭고도 힘든 격리인 동시에 ㉒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계기이기도 했다. 귀양살이의 심경은 흔히 ㉓자연물을 매개로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는 형태로 정형화되었지만, 때로는 자기 부정이나 ㉔적대자에 대한 원망으로 표출되기도 했다. ㉔떠나온 곳에 마음을 두고 복귀를 욕망하는 모습을 찾아보는 것 또한 어렵지 않다. 이러한 다양한 면모가 엮히는 데에 유배 가사의 묘미가 있다.

적대자에 대한 얘기는 찾아볼 수가 없죠?

이건 강 찾기문제 ㅋㅋ

답 4번.

26.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 ① 창조 산업은 미래 예측성과 성공 가능성이 크다.
- ② 창조 도시를 위해서는 기존 환경을 단시간에 개조해야 한다.
- ③ 창조 산업과 창조 계층이 갖추어져야 창조 환경이 마련된다.
- ④ 창조 도시에는 문화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 ⑤ 창조 계층의 창의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 능력을 표준화해야 한다.

27. ㉠~㉣와 바꿔 쓸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 갖추고 ② ㉡: 늘리는
- ③ ㉢: 높이는 ④ ㉣: 이끈
- ⑤ ㉤: 따르기도

[28~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서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
 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
 에 눈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
 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 **견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
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
싸고 돕니다.

- 한용운, 『님의 침묵』 -

(나) 크낙산 골짜기가 온통
 연록색으로 부풀어 올랐을 때
 그러니까 신록이 우거졌을 때
 그곳을 지나가면서 나는
 미처 몰랐었다

뒷절로 가는 길이 온통
 주황색 단풍으로 물들고 나뭇잎들
 무더기로 바람에 떨어지던 때
 그러니까 낙엽이 지던 때도
 그곳을 거닐면서 나는
 느끼지 못했었다

이렇게 한 해가 다 가고
 눈발이 드문드문 훑날리던 날
 앙상한 대추나무 가지 끝에 매달려 있던
 ㉢ **나뭇잎 하나**
 문득 혼자서 떨어졌다

저마다 한 개씩 돌아나
 여럿이 모여서 한여름 살고
 마침내 저마다 한 개씩 떨어져
 그 많은 나뭇잎들
 사라지는 것을 보여 주면서

- 김광규, 『나뭇잎 하나』 -

(다) 삼경에 못 든 잠을 사경 말에 비로소 들어
 상사(相思)하던 우리 님을 꿈 가운데 해후하니
시름과 한(恨) 못다 일러 한바탕 꿈 흠어지니
아리따운 고운 얼굴 곁에 얼핏 앓았는 듯
 어화 아득하다 꿈을 생시 삼고지고
 잠 못 들어 탄식하고 바삐 일어나 바라보니
 구름산은 첩첩하여 천리몽(千里夢)을 가려 있고
 흰 달은 창창하여 두 마음을 비추었다
좋은 기약 막혀 있고 세월이 하도 할사
 엇그제 꽃이 버들 곁에 붉었더니
 그 곁에 훌훌하여* 앞에 가득 가을 소리라
새벽 서리 지는 달에 외기러기 슬피 울 제
 반가운 님의 소식 행여 올까 바라더니
 아득한 구름 밖에 빈 소리뿐이로다
 지리하다 이 이별이 언제면 다시 볼까
어화 내 일이야 나도 모를 일이로다
 이리저리 그리면서 어이 그리 못 가는고
 약수(弱水)* 삼천 리 멀단 말이 이런 곳을 일렀구나
 산 머리에 조각달 되어 님의 닳에 비추고자
 바위 위에 오동 되어 님의 무릎 베고자
 빈산에 잘새 되어 북창(北窓)에 가 울고자 **[A]**
 지붕 위 아침 햇살에 제비 되어 날고지고
 옥창(玉窓)의 앵두화에 나비 되어 날고지고
 태산이 평지 되도록 금강이 다 마르도록
 평생 슬픈 회포 어디에 견주리오

- 작자 미상, 『춘면곡(春眠曲)』 -

* 훌훌하여: 시간이 빨리 지나가서.
 * 약수: 신선이 사는 땅에 있다는 강 이름.

28.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거의 상황을 환기하며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 ② 자연의 변화를 표현하여 화자의 미래를 암시한다.
- ③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을 예찬한다.
- ④ 관조적인 자세로 대상이 지닌 의미를 새롭게 발견한다.
- ⑤ 섬세하고 부드러운 어조로 애상적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29.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에서는 시상이 확산되고 있다.
- ② ㉠과 ㉡ 모두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 ③ ㉠은 ㉡과 달리 화자의 의지가 투영되어 있다.
- ④ ㉡은 ㉠에 비해 역동적인 느낌이 두드러진다.
- ⑤ ㉠은 사실의 기술이, ㉡은 관념의 표현이 부각된다.

30. (가)와 (다)를 대응시켜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첫 번째 ‘아아’와 (다)의 두 번째 ‘어화’는 부정적 상황에 대한 비탄의 표현으로 볼 수 있군.
- ② (가)의 ‘차디찬 티끌’과 (다)의 ‘새벽 서리’는 허무하게 깨진 인연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통하네.
- ③ (가)의 ‘꽃다운 님의 얼굴’과 (다)의 ‘아리따운 고운 얼굴’은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
- ④ (가)의 ‘눈물’과 (다)의 ‘시름과 한’은 이별로 인해 생겨난 슬픔이라 할 수 있어.
- ⑤ (가)의 ‘다시 만날 것’과 (다)의 ‘좋은 기억’은 ‘님’과 만나고 싶은 소망과 관련되겠군.

31. <보기>를 바탕으로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님의 침묵」에서 ‘노래’와 ‘침묵’은 화자와 ‘님’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되는 시어이다. 한용운은 시 「반비레」에서 “당신이 노래를 부르지 아니하는 때에 당신의 노랫가락은 역력히 들립니다그려 / 당신의 소리는 침묵이예요”라고 했다. 침묵이라는 부재의 상태에서 ‘님’의 실재를 본 것이다. 화자는 ‘님’을 향해 ‘노래’를 부르는데, 시 「나의 노래」에서 “나의 노래가 산과 들을 지나서 멀리 계신 님에게 들리는 줄”을 안다고 했다. 이는 화자가 자신의 노래에 ‘님’과 근원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① 노래가 제 곡조를 못 이긴다는 것은 ‘님’이 침묵하는 상황을 화자가 감당하지 못한다는 뜻이야.

- ② 노래가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돈다는 것은 화자가 부재 속에 실재하는 ‘님’과 깊이 교감한다는 뜻이야.
- ③ ‘나의 노래’가 산과 들을 지나서 멀리 나아간다고 한 데서 ‘사랑의 노래’가 자연 친화적임을 알 수 있어.
- ④ 침묵을 휩싸고 도는 노래가 ‘사랑의 노래’라는 것은 침묵이 끝나야 사랑이 비로소 시작되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
- ⑤ 침묵하는 ‘님’에게서 노랫가락을 역력히 듣는다는 데서 ‘사랑의 노래’가 화자의 노래가 아니라 ‘님’의 노래임을 알 수 있어.

32.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1연, 2연에서 유사한 구조의 문장을 사용함으로써 대상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화자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 ② 1~3연에서 ‘골짜기’→‘길’→‘대추나무’→‘나뭇잎 하나’로 시적 대상이 바뀌면서 화자와 대상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다.
- ③ 1~4연에서 ‘그러니까’, ‘문득’, ‘마침내’와 같은 부사는 독자로 하여금 화자의 인식에 주목하게 하고 있다.
- ④ 4연에서 ‘저마다 한 개씩’이라는 시구를 반복함으로써 세상과 화합할 수 없는 존재의 고뇌를 강조하고 있다.
- ⑤ 4연에서 화자는 생성에서 소멸에 이르는 자연물의 변화 과정을 통해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있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A]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시조나 가사에는, 임과 헤어져 있는 화자가 어떤 특정한 자연물로 다시 태어나서 임의 곁에 머물고 싶다는 진술이 흔히 나타난다. 이러한 진술은 화자의 소망을 강조하기 위한 관습적 표현인데, 그 속에는 당대인들의 세계관이 투영되어 있다. 인간과 자연이 깊은 관련을 맺으며 조화를 이룬다는 인식, 현세의 인연이 후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순환적 인식 등이 그것이다. 시가에 담긴 이러한 인식은 화자가 현실의 고난이나 곁핍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 ① 관습적인 표현을 활용한 것은 개인적 정서를 보편적인 것으로 느끼게 하는 데 효과적이었겠어.
- ② 비슷한 의미 구조를 지니는 구절을 거듭 제시함으로써 화자의 소망이 간절함을 강조하고 있어.
- ③ ‘오동’, ‘제비’, ‘나비’ 등이 사용된 데서, 인간과 자연이 관련되어 있다는 화자의 인식을 엿볼 수 있어.
- ④ ‘조각달’이나 ‘잘새’ 같은 소재에는 ‘님’과 함께 크고 넓은 세계로 도약하려는 화자의 희망이 담겨 있어.
- ⑤ 자연물로 변해서라도 ‘님’과 만나려 하는 것을 보니 화자가 ‘님’과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어.

(가)님의 침묵 - 한용운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님은 갔습니다.

이별했나보네요

님이 떠나갔습니다

이제님이 없는 부재의 상황이 된거죠 ㅠ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면 어떨죠?

슬프고 보고싶죠

이 시는 이제 슬프고 보고싶고 그렇다는 내용이 나오겠네요

님은 갔습니다 - 반복, 대화체

아아 - 영탄

사랑하는 - 정서 직접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어떻게 떠나갔는지 얘기하네요

단풍나무 숲 쪽으로 가버렸습니 다 ㅠㅠ

차마 떨치고 갔다는 건은

내가 붙잡았는데도 뿌리치고 갔다는 의미겠죠?

푸른 - 색채

단풍 - 계절감, 시각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서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예전에 맹세를 했나보죠?

근데 지금은님이 떠나서 맹세가 깨졌대요

님이 떠남 = 맹세 깨짐

그럼 맹세의 내용은 뭘까요?

'떠나지 않겠다. 영원히 함께 하겠다.' 이런내용이겠죠 ㅎㅎ

황금의 꽃같이 - 색채, 비유

빛나던 맹서 - 시각화

차디찬 - 촉각

티끌이 되어 날아갔다 - 형상화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 쳐서 사라졌습니다.

첫키스의 추억이 날카롭다는 건 그만큼 인상 깊었다는 거겠죠?
첫키스라는 건 사랑의 시작이라고 봐도 되겠죠
님과 사랑이 시작되면서 내 운명은 변했는데
지금은 떠나버렸습니다 TTT

날카로운 추억 - 형상화
운명의 지침 - 형상화, 비유
추억은 ~ 뒷걸음 쳐서 사라졌습니다 - 활유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콩깍지가 썩인 거겠죠?
님의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_<

향기로운 - 후각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어찌 될지 모른다는 의미겠죠
사람의 일은 어찌될 줄 모르기에
그만큼 사랑했지만 이별을 미리 대비하고는 있었는데
막상 닥치고 보니 너무 힘들다네요..
이별은 항상 힘들죠 TTT

슬픔 - 정서 직접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건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화자는 이별했다고 계속 울기만 하면
사랑을 깨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려고 하네요
헤어진 상황에서의 희망은 당연히 다시 만나는 것 밖에 없겠죠?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 형상화, 정서직접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오호, 만날 때 떠날 걸 걱정한 것처럼
지금은 헤어졌지만 다시 만날 걸 기대한다네요.
위에서 말한 재회의 희망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ㅎㅎ

~할 때 ~할 것 ~함 - 유사구조 반복

**아아,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님은 분명 떠났지만 나는 다시 만날 걸 믿고 있기에 님을 보내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네요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을 사랑하고 기다리는 나의 마음이고
님의 침묵은 나를 떠나버린 님의 마음이겠죠
님의 침묵은 이별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고
나의 사랑의 노래가 님의 침묵을 휩싼다는 것은
다시 만난다는 희망으로 이별을 극복하고 이겨내겠다는 의미가 되겠네요
누구나 이별은 하지만 사람마다 그 대처가 다른데
이 사람은 희망으로 이별을 극복하는 방법을 택했네요

아아 - 영탄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 역설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 형상화(침묵은 형체가 없는데 그것을 휩싸고 했으므로)

(나)나뭇잎 하나 - 김광규

**크낙산 골짜기가 온통
연록색으로 부풀어 올랐을 때
그러니까 신록이 우거졌을 때
그곳을 지나가면서 나는
미처 몰랐었다**

여름에 나는 골짜기를 지났는데
그 때는 미처 몰랐대요
뭘 몰랐을까요? 궁금하네요 ㅎㅎ

연록색 - 색채

신록 - 계절감

뒷절로 가는 길이 온통
주황색 단풍으로 물들고 나뭇잎들
무더기로 바람에 떨어지던 때
그러니까 낙엽이 지던 때도
그곳을 거닐면서 나는
느끼지 못했었다

가을에도 갔었나봐요
근데 그때도 느끼지 못했대네요 ㅎㅎ

주황색 - 색채
단풍, 낙엽 - 계절감

이렇게 한 해가 다 가고
눈발이 드문드문 흩날리던 날
양상한 대추나무 가지 끝에 매달려 있던
나뭇잎 하나
문득 혼자서 떨어졌다

이제 한해가 다 가고 겨울이 됐습니다
계절바뀔때마다 가나보네요 ㅎㅎ
근데 그때는 나뭇잎이 하나
문득 혼자 떨어졌대요
그런가봐요 ㅋㅋ

눈 - 계절감

저마다 한 개씩 돌아나
여럿이 모여서 한여름 살고
마침내 저마다 한 개씩 떨어져
그 많은 나뭇잎들
사라지는 것을 보여 주면서

이 사람이 콜짜기를 오가면서 깨달은 내용이
이 내용이죠
날 때는 따로 태어나고
여름(인생)은 모여서 살고
죽을땐 다시 따로 떨어져서 죽는다는 얘기네요 ㅎㅎ

(다) - 작자 미상, 「춘면곡(春眠曲)」 -

봄에 잠자다가 꿈꿨나봐요 ㅋㅋ

삼경에 못 든 잠을 사경 말에 비로소 들어
상사(相思)하던 우리 님을 꿈 가운데 해후하니
시름과 한(恨) 못다 일러 한바탕 꿈 흠어들어지니
아리따운 고운 얼굴 곁에 얼핏 앉았는 듯
어화 아득하다 꿈을 생시 삼고지고

불면증이 있나보네요 ㅋㅋ

늦게나마 겨우 잤는데 그리워하던 내 님을 꿈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앓 시발꿈 ㅋㅋ (o_o)

꿈을 현실로 삼고싶습니다 ㅠㅜ

-지고는 -하고싶다는 의미입니다 ㅎㅎ

어화 - 영탄('아아'랑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시름과 한 - 정서직접

잠 못 들어 탄식하고 바빠 일어나 바라보니
구름산은 첩첩하여 천리몽(千里夢)을 가려 있고
흰 달은 창창하여 두 마음을 비추었다
좋은 기약 막혀 있고 세월이 하도 할사

다시 자서 꿈을 꾸고 싶은데 못 들어서 탄식하고 있네요 ㅋㅋ

저런 경험 다들 있죠 ㅋㅋ 기분좋은 꿈을 꾸다가 깨서 다시 꾸려고 자려고 하면 잠이 안
들고.. 저만 있나요? ㅋㅋㅋ

암튼 잠에서 깨어 일어나보니까

구름산은 첩첩이 쌓여있어서 천리몽을 가리고 있네요 ㅠㅜ

천리몽은 천리만큼 멀리있는 꿈이겠죠 ㅎㅎ

지금 부재의 상황에서 님을 그리워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꿈은 재회를 의미하겠죠 ㅎㅎ

근데 님은 천리만큼 멀리있나보네요 ㅎㅎ

좋은 기약 역시 재회를 뜻하는 거구요

세월은 많기도 많다는 재회하기까지의 세월이 많이 남았다 이런 의미인 듯 ㅋㅋ

천리몽을 가려있고 - 형상화

흰 달은 창창 - 색채, 시각

두 마음을 비추었다 - 형상화

엇그제 꽃이 버들 곁에 붉었더니
 그 곁에 훌훌하여= 잎에 가득 가을 소리라
 새벽 서리 지는 달에 외기러기 슬피 울 제
 반가운 님의 소식 행여 올까 바라더니
 아득한 구름 밖에 빈 소리뿐이로다
 지리하다 이 이별이 언제면 다시 볼까
 여화 내 일이야 나도 모를 일이로다
 이리저리 그리면서 어이 그리 못 가는고
 약수(弱水)* 삼천 리 멀단 말이 이런 곳을 일렀구나

꽃이 붉었던게 엇그제 같은데 벌써 가을이네요. 시간은 참 빨리 갑니다 ㅋㅋ
 외기러기가 슬피 우는 건 화자가 슬퍼서 그렇게 느끼는 거겠죠? ㅎㅎ
 님을 기다리지만 님의 소식은 없고 빈 소리뿐이네요
 지리하다는 지루하다라는 뜻이구요
 언제볼지 나도 잘 모르겠다 이려고 있네요 ㅎㅎ
 이렇게 그리워하는데 왜 거기로 안가냐? 스스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약수는 디게 먼 곳인데 암튼 '약수가 멀다는 말'이 자신의 상황을 말하는 것 같다니까
 이게 그리워하면서도 못가는 이유가 되겠죠 ㅎㅎ 멀어서 못간다는 거네요 ㅎㅎ

붉었더니 - 색채
 외기러기 슬피 울 제 - 감정이입
 어이 그리 못 가는고 - 설의
 일렀구나 - 영탄

산 머리에 조각달 되어 님의 낮에 비추고자
 바위 위에 오동 되어 님의 무릎 베고자
 빈산에 잘새 되어 북창(北窓)에 가 올고자
 지붕 위 아침 햇살에 제비 되어 날고지고
 옥창(玉窓)의 앵두화에 나비 되어 날고지고
 태산이 평지 되도록 금강이 다 마르도록
 평생 슬픈 회포 어디에 견주리오

님의 곁에 가고싶어서 별게 다 되고 싶습니다 ㅎㅎ
 뭐가 되고 싶다고 나온 것 모두 님의 곁에 갈 수 있기때문에
 되고 싶은 거죠 ㅎㅎ

~에 ~되어 ~하고자 - 대구
 날고지고 - 반복
 슬픈 - 정서직접
 견주리오 - 영탄

㉔28번.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과거의 상황을 환기하며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 (가),(나)는 과거형 어미를 써서 확실하게 알 수 있구요 (다)는 좋은 기억이라는 시어를 통해 과거에 재회를 약속했던 상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② 자연의 변화를 표현하여 화자의 미래를 암시한다.

- 미래를 암시하는 건 하나도 없네요 ㅎㅎ 자연의 변화는 모두 나와있네요 ㅋㅋ (가)는 좀 애매하지만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나)는 나뭇잎, 단풍, 눈으로 계절의 변화가 명확히 있고 (다)는 엇그제 꽃이 벼들 곁에 붉었더니 ~ 가을소리 라는 부분에서 살피볼 수 있습니다 ㅎㅎ

③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을 예찬한다.

- 감각적 이미지는 시에서 안 나올 수가 없죠 ㅎㅎ 강 무조건 맞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ㅎㅎ 시적 대상을 예찬하는 건 (나)만 없네요 ㅎㅎ (가)에서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 꽃다운 얼굴, (다)에서 아리따운 고운 얼굴이 있네요 ㅎㅎ

④ 관조적인 자세로 대상이 지닌 의미를 새롭게 발견한다.

- 관조는 객관적으로 관찰하는거라 그래요? ㅎㅎ (나)만 맞네요 ㅎㅎ (가),(다)는 이별(부제)의 상황에서 님을 그리워하는 내용이라 감정폭발이구요 ㅋㅋ

⑤ 섬세하고 부드러운 어조로 애상적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 섬세하고 부드러운 어조라고 하면 보통 여성적 어조를 말합니다 ㅎㅎ (가)같은 경우가 완벽히 들어맞고, (나)는 아예 아니고 (다)도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ㅎㅎ (가)는 대화체와 경어체를 써서 상당히 부드러운 어조라고 볼 수 있죠 ㅎㅎ (다)는 (가)에 비해선 덜 부드럽지만 화자가 님을 그리워하는 여성이므로 꽤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ㅎㅎ 그리고 애상적 분위기는 슬픈 분위기죠 ㅎㅎ (가), (다)가 맞네요 ㅎㅎ (나)는 새로운 사실을 깨달은 것이니 딱히 해당이 안되구요 ㅎㅎ

답 1번.

㉔29번. ㉔과 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㉔과 ㉔에서는 시상이 확산되고 있다.

- 시상이 확산됐다는 것은 '서술하는 대상이 옮겨간다, 혹은 의미가 추가된다'로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보면 ㉔은 맞다고 볼 수 있죠 ㅎㅎ ㉔은 아니구요 ㅎㅎ

② ㉔과 ㉔ 모두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은 '자신의 감정이 어떻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㉔에선 슬프다 라고 직설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표현했으므로 아니고 ㉔은 감정표현이 아예 없네요 ㅋㅋ

③ ㉔은 ㉔과 달리 화자의 의지가 투영되어 있다.

- ㉔은 ~하겠다. 라는 의지표현이 분명히 있는데 ㉔은 그냥 사실의 관찰이죠 ㅎㅎ

④ ㉔은 ㉔에 비해 역동적인 느낌이 두드러진다.

- 일단 둘다 움직이는 것이고 나뭇잎이 뚝 떨어지는 것이 역동적인 느낌이 두드러진다고 보긴 어렵겠죠 ㅎㅎ 잡기 힘든 슬픔을 옮겨서 희망의 정수박이에 옮겨담는 것과 나뭇잎이

하나 떨어지는 것의 모습을 상상해본다면 사실 전자의 모습이 훨씬 역동적이겠죠 ㅎㅎ

㉮ ㉮은 사실의 기술이, ㉮은 관념의 표현이 부각된다.

- 반대로 됐네요 ㅋ

답 3번.

㉮30번. (가)와 (다)를 대응시켜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가)의 첫 번째 '아아'와 (다)의 두 번째 '어화'는 부정적 상황에 대한 비탄의 표현으로 볼 수 있군.

- 이별의 상황이니까 부정적 상황으로 볼 수 있고 그에 대한 탄식이니까 당연히 맞죠 ㅎㅎ

㉮ ㉮(가)의 '차디찬 티끌'과 (다)의 '새벽 서리'는 허무하게 깨진 인연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통하네.

- 차디찬 티끌은 인연이 깨진 거을 의미하지만 새벽서리는 단순히 새벽에 내리는 서리를 의미합니다. 새벽서리가 이별과 관련됐다는 근거는 그대로읽기, 문맥적읽기를 써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아니겠죠 ㅎㅎ 이런 이별을 주제로 한 시에서 자연물이 나올 때는 대다수가 이별이나 화자의 심리상태와 관련이 있지만 이렇게 아무의미 없이 분위기를 형성하는 목적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ㅎㅎ 표현법 설명할 때 객관적 상관물에서 분위기 형성하는 자연물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게 이런 경우예요 ㅎㅎ

㉮ ㉮(가)의 '꽃다운 님의 얼굴'과 (다)의 '아리따운 고운 얼굴'은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 - 맞죠 ㅋ

㉮ ㉮(가)의 '눈물'과 (다)의 '시름과 한'은 이별로 인해 생겨난 슬픔이라 할 수 있어. - 당근

㉮ ㉮(가)의 '다시 만날 것'과 (다)의 '좋은 기약'은 '님'과 만나고 싶은 소망과 관련되겠군.

- 오브콜스

답 2번.

㉮31번. <보기>를 바탕으로 ㉮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님의 침묵』에서 '노래'와 '침묵'은 화자와 '님'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되는 시어이다. 한용운은 시 『반비레』에서 “당신이 노래를 부르지 아니하는 때에 당신의 노랫가락은 역력히 들립니다그려 / 당신의 소리는 침묵이에요”라고 했다. 침묵이라는 부재의 상태에서 '님'의 실재를 본 것이다. 화자는 '님'을 향해 '노래'를 부르는데, 시 『나의 노래』에서 “나의 노래가 산과 들을 지나서 멀리 계신 님에게 들리는 줄”을 안다고 했다. 이는 화자가 자신의 노래에 '님'과 근원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보기에 명확한 핵심이 있고 보기를 바탕으로 적절한 것을 찾으라는 문제이므로 보기의 핵심을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ㅎㅎ '소통' 하는 내용을 찾으면 되겠네요 ㅋ 2번이네요 ㅋ 다른 선지들은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럴 듯한 선지도 있지만 안되는 이유는 보기를 바탕으로 이해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ㅎㅎ

- ①노래가 제 곡조를 못 이긴다는 것은 ‘님’이 침묵하는 상황을 화자가 감당하지 못한다는 뜻이야.
- ②노래가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돈다는 것은 화자가 부재 속에 실재하는 ‘님’과 깊이 교감한다는 뜻이야.
- ③‘나의 노래’가 산과 들을 지나서 멀리 나아간다고 한 데서 ‘사랑의 노래’가 자연 친화적임을 알 수 있어.
- ④침묵을 휩싸고 도는 노래가 ‘사랑의 노래’라는 것은 침묵이 끝나야 사랑이 비로소 시작되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
- ⑤침묵하는 ‘님’에게서 노랫가락을 역력히 듣는다는 데서 ‘사랑의 노래’가 화자의 노래가 아니라 ‘님’의 노래임을 알 수 있어.

답 2번.

㉔32번.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1연, 2연에서 유사한 구조의 문장을 사용함으로써 대상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화자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 '~하던 때, 나는 ~했다' 이런 구조네요 ㅎㅎ 둘다 비슷합니다. 깨닫지 못했다는 내용도 맞구요 ㅎㅎ
- ②1~3연에서 ‘꼴짜기’→‘길’→‘대추나무’→‘나뭇잎 하나’로 시적 대상이 바뀌면서 화자와 대상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다.
- 그러네요 ㅎㅎ 점점 가까워지는 걸 알 수 있죠 ㅋㅋ
- ③1~4연에서 ‘그러니까’, ‘문득’, ‘마침내’와 같은 부사는 독자로 하여금 화자의 인식에 주목하게 하고 있다.
- 강 선지 개수 채우려고 낸 거죠 ㅋㅋ 이게 답이라면? 부사를 아무이유없이 그냥 쓴거라서 틀린건가? ㅋㅋ
- ④4연에서 ‘저마다 한 개씩’이라는 시구를 반복함으로써 세상과 화합할 수 없는 존재의 고뇌를 강조하고 있다.
- 먼소리여 ㅋㅋ 세상과 화합할 수 없다는 내용이 어딴죠? ㅋㅋ 살아갈 때는 모여서 살고 날 때랑 갈 때는 각자 간다는 내용이잖아요 ㅋㅋ
- ⑤4연에서 화자는 생성에서 소멸에 이르는 자연물의 변화 과정을 통해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있다.
- 그러네요 ㅋㅋ

답 4번.

㉔33번. <보기>를 참고하여 [A]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시조나 가사에는, 임과 헤어져 있는 화자가 어떤 특정한 자연물로 다시 태어나서 임의 곁에 머물고 싶다는 진술이 흔히 나타난다. 이러한 진술은 화자의 소망을 강조하기 위한 관습

적 표현인데, 그 속에는 당대인들의 세계관이 투영되어 있다. 인간과 자연이 깊은 관련을 맺으며 조화를 이룬다는 인식, 현세의 인연이 후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순환적 인식 등이 그것이다. 시가에 담긴 이러한 인식은 화자가 현실의 고난이나 결핍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 보기를 봤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네요 ㅋㅋ 이건 사실 보기를 주는 의미가 그닥 없습니다. 내용상 틀린거 찾으시면 되는거예요 ㅎㅎ 07수능(이육사 교목) 30번문제가 보기를 주고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였는데 선지5번에서 '바람'의 의미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냥 틀려서 틀린거였죠 ㅋㅋ 보기랑 딱히 상관은 없어요 ㅋㅋ

① 관습적인 표현을 활용한 것은 개인적 정서를 보편적인 것으로 느끼게 하는 데 효과적이었겠어.

- 그러겠죠 ㅋㅋ 보기 주고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는 대충 그럴듯 하면 짝 남기고 딱 틀린거 찾으시면 됩니다 ㅎㅎ 이런건 답이 될 수가 없어요 ㅋㅋ 왜냐면 오답이 될 판단 근거가 없거든요 ㅋㅋ

② 비슷한 의미 구조를 지니는 구절을 거듭 제시함으로써 화자의 소망이 간절함을 강조하고 있어.

- 에휴 ㅋㅋ 그냥 선지채우려고 낸거죠? ㅋㅋ

③ '오동', '제비', '나비' 등이 사용된 데서, 인간과 자연이 관련되어 있다는 화자의 인식을 엿볼 수 있어.

- 관련이 있겠죠.. 으 ㅋㅋ 보기에도 나왔습다 ㅋㅋ

④ '조각달'이나 '잘새' 같은 소재에는 '님'과 함께 크고 넓은 세계로 도약하려는 화자의 희망이 담겨 있어.

- 이거 완전 개소리잖아요 ㅋㅋ (다)시의 내용이 님을 그리워하고 재회를 희망하는 내용인데, 넓은 세계로 도약하려는 건 전혀 없었어요 ㅎㅎ 이게 맞으려면 보기에 있어야겠죠 ㅎㅎ 그리고 이게 맞으려면 적절한 것을 물어보는 문제로 나왔어야돼요 ㅎㅎ 왜냐면 시 자체에서는 전혀 파악할 수 없고 보기를 주지 않고서는 그럴듯하다고 여길만한 일반적 인식도 아니니까요 ㅎㅎ

⑤ 자연물로 변해서라도 '님'과 만나려 하는 것을 보니 화자가 '님'과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어.

- 그러겠죠.. 당연함 ㅋㅋ 시에도 나와있고 ㅋㅋ

답 4번.